

민천주보

제2645호

2020년 11월 29일 | 대림 제1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교구 주보 바다의 별 성모상, 인천교구청

입당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ㄹ-7

화답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

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3-9

복음 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마르 13,33-37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합시다 (2025년, 매립지 종료)

한정된 땅에 엄청난 쓰레기를 계속 매립할 순 없으니까요

기억과 감사의 해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신명 8,2)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참조 히브 4,12).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사도 바오로의 이 고백을 체험하고 느꼈던 성서의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성서의 해는 끝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야 함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2021년은 교구 설정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1년 9개 본당, 59개의 공소, 그리고 23,169명의 신자로 시작된 인천교구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이하며 129개 본당, 약 53만명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구사제도 351명으로 많아졌습니다. 교구가 시작되면서 인천교구 관할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주셨던 **故 나 굴리엘모 주교님**과 **메리놀 선교사제들** 그리고 **골롬반 선교사제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구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외국인 선교사제들, 수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신 **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교구 신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1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UNESCO)가 2021년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였기에, 교회 내, 외적으로 더욱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의 기억을 되살려 보아야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신앙의 씨앗입니다**’(테르툴리아누스 교부)라는 말처럼,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사제였던 성 김대건 신부님은 짧은 사목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복음전파에 힘쓰셨고, 체포 후에는 권력과 재물의 유혹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순교신앙의 뿌리는 인천에도 있습니다. 1838년, 정 바오로를 비롯한 50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중에 12명이 신앙을 증거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는 문헌적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1839년 기해박해 때 부평에서 태어난 성 김성임 마르타와 인천지역 양반 출신 복자 심조이 바르바라가 순교하였습니다. 인천교구는 성인품과 복자품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기 전까지 여러 박해 때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을 제물진두, 갑곶성지, 진무영 성지, 일만위 순교 동산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의 신앙의 뿌리는 이렇게 순교자들의 신앙에서 시작되어, 1961년 인천교구가 설정되면서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6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약 53만명의 신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이 간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듯,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이란,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성장은 과거처럼 현재에도 고난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일하는 그러한 노력의 열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주교단 만남).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위협이 박해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또 다른 형태로 신앙을 위협하고 왜곡하는 모든 고통을 순교신앙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모

세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신명 8,2)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모세는 말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참조 신명 8,14)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늘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서,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길을 기억합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총이었네’라는 말처럼, 우리 교구 안에 역사하신 하느님의 손길, 우리 각자 모두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사성제를 ‘감사의 전례’라 부르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말씀처럼, 미사성제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살아가는 일 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들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제영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 영성을 삶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의 순교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순교가 ‘녹색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의 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순교’의 깊은 의미를 알고 행동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태환경의 보호는 곧 하느님 창조질서의 복원이기에, 앞으로 사목서한을 통해 이 의미를 더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60년을 시작하면서 교구는 ‘인천교구 역사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역사를 문서 목록화하는 작업도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 정리는 교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본당, 단체, 기관 등 교구 내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모두가 ‘감사의 전례’인 미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매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낱말이 이야기하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시편 9,2-3) 이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 각자 모두의 삶,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일.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미사성제는 ‘감사의 전례’입니다. 미사성제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가장 궁극적 행위는 미사성제의 참여에 있습니다. 미사성제를 통한 주님과와의 만남이야말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느끼는 순간이며 이 성사를 통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으며 희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2020년을 보내며 우리 모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힘든 나날을 보냈음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고 있기에,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 봅니다.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인천교구 신자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교구 주보이신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전구를 청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 김 신철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마르 13,33)

곱게 물들었던 단풍도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의 나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待臨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은 구세주의 오심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시기 동안 제대 주위에는 화려함을 피하고, 미사 전례에서는 대영광송을 하지 않으며, 사제는 회개와 보속의 뜻으로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한, 제단에 대림초 4개의 불을 하나씩 하나씩 켜 가면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상기시킵니다. 이 4개의 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애타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구약의 4천 년을 의미합니다. 초의 색깔로는 진한 보라색, 옅은 보라색, 옅은 분홍색, 흰색을 사용하며 진한 보라색부터 촛불을 켜지요. 이 4개의 초가 옅은 색으로 변화되는 것은 구세주를 맞이하려는 우리들 마음의 정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불을 밝힌 초가 늘어남으로써 세상을 환히 밝히는 구세주의 오심을 드러냅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들 삶 안에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며 기도와 선행을 통해 아기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깨어 있어라.”(마르 13,35)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마르 13,33)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지킬 것은 신앙이요, 조심할 것은 그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제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청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이사 63,16-17)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게만 느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질만능 시대에 끊임없이 소유와 소비를 탐닉하며, 온갖 탐욕과 갈등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상 속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일에는 한껏 깨어있었으나,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에는 늘 즐기만 했던 죄책감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유익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로 더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의 후회가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안에 다시금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깨어 지키는 대림 시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허흥 프란치스코 신부
성소국장

교구 안내

코로나-19의 2단계 격상에 대한 안내(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24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의 방역지침을 참고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방역조치

- 미사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 금지
(피정, 기도회, 구역 미사 및 기도, 교육,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거주지, 전화번호 기재)
-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사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참조: 인천교구 공문 천인-사무처-2020-263

교구 안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사도좌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신자들의 신앙 증진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사원을 통하여 특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한국의 교구들에서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리며 성대하게 경축하는 기회에, 신자들이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한국 교구장 주교들이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어느 곳이든 순례하여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할 때 전대사를 받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교구 희년 전대사 수여 성당과 성지를 답동 주교좌 성당, 계산동 성당, 내가 성당, 백령도 성당, 소사 성당, 원당동 성당, 일신동 성당, 주안8동 성당, 제물진두 순교성지,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으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대사 조건

-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순례하여 청원 서한에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할 때(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열리는 사제 쇄신을 위한 프로그램, 김대건 신부 희년 행사나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신심 행위)
-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 김대건 신부와 함께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년)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을 바칠 때
-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기도를 봉헌할 때

참조: 인천교구 공문 천인-사무처-2020-262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 8,29)



박문초등학교

가톨릭 영성의 진·선·미를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세계인 양성



소명여자중학교

평화, 정의, 사랑의 가톨릭 정신을
생활화하며,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실천하는 혁신학교



박문중학교

진·선·미를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기주도적인 세계인 양성



소명여자고등학교

사랑과 정의, 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생명을 사랑하는 창조적이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전인적 인재 양성



인천대건고등학교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즐거운
배움 속에서 꿈을 이루는 학교

· 2021학년도 중등 신규교사 채용

전형일정: 교육재단 소속 학교홈페이지 (대건고, 박문여고, 박문중),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모집: 11/16(월)~12/18(금) / 채용: 총 11명 ☎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032-766-6985, 6986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캠퍼스/송도국제캠퍼스)

정시모집: 21/1/7(목)~1/11(월) 조형예술대학(나군), 간호대학(다군)

편입학모집: 20/12/15(화)~22(화) / 면접: 21/1/15(금) / 합격자 발표: 21/2/5(금)

☎ 송도국제캠퍼스 032-830-7022 / <https://admission.iccu.ac.kr>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 미술학과, 조형예술학과, 디자인 콘텐츠학과, 간호학과

그리스도교 미술학과 내 **교회문화재 전공** 석사과정은 국내 최초로 신설된 교회미술과
교회 건축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실무 중심형 교육과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과 성지,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큐레이터 양성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관광스포츠대학, 항공대학, 공과대학, 미디어예술대학,
사범대학, 휴먼서비스대학

정시모집: 21/1/7(목) 9:00~11(월) 18:00 / 편입학모집: 20/12/21(월) 9:00~28(월) 15:00

☎ 033-649-7000 / <http://www.cku.ac.kr>



· 2021학년도 대학원 전기 신(편)입학 모집

21/1/18(월) 9:00~22(금) 18:00

합격자 발표: 21/2/3(수) 15:00 예정

· 2021학년도 대학원 신(편)입학 모집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창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 ☎ 033-649-7172

<http://www.cku.ac.kr> “대학원” 클릭

교구청 알림

◆ 성탄절 산타되기 프로젝트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성탄절 선물비 후원
후원마감: 12/20
☎ 정의평화위원회 032-765-6970

교육 | 피정

◆ 교구 예비신자 피정

때: 4차 12/12(토) 9:30~15:30
곳: 복자 이 안나 홀
교구 공문 참조
☎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010-2123-6319

◆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 피정

때: 12/23(수) 16:30~25(금) 13:30
곳: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24만원, 접수 후 입금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054-971-0722, 010-6791-0071

◆ 4차 젊은이 몸신학 피정

몸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때: 12/11~13 [2박 3일]
회비: 8만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청년(선착순)
곳: 평창 라베르나 기도의 집
☎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010-5313-0241

◆ 깊이 있는 전례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전례 봉사자를 위한 맞춤 전례 교육으로
호흡·발음·발성 연습 [2개월-8회 강의]
주간반: 21/1/15(금) 10:00 미사 후 개강
저녁반: 21/1/14(목) 19:00 미사 후 개강
미사 후 1~1시간 30분 진행
수강인원: 20명 이하
수강료: 1인당 20만원
(독서/해설 봉사자 수강료 50% 할인)
강사: 불로동 성당 이우진 요셉 주임 신부
☎ 032-569-1004

◆ 21년 노틀담 첫영성체 교재(대면/비대면) 연수

대면: 1/11~12, 2/22~23 서울 노틀담 교육관
비대면: 1/4~5, 16~17, 2/15~16, 27~28
cafe.daum.net/ndfirst
주관: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때: 12/2(수) 9:30~16:30
곳: 가톨릭 회관 7층 강당
강사: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 010-6281-8626, 대표 02-777-1773

미사 | 행사

◆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례미사

때: 12/3(목) 14:00
곳: 박순집 베드로 홀
☎ 010-2311-1306

◆ 체나콜로(다락방) 기도 및 미사

때·곳: 11/30(월) 부평4동 성당
12:30 찬미 후 체나콜로 기도 후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세지 합본

◆ 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송년 미사

때: 12/4(금)
곳: 사회사목센터 4층 강당
봉사하며 선교하시고자 하는 분 초대
☎ 010-6327-3427

◆ 군중후원회 성탄선물 전달

사병 군인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12/14(월)
☎ 군중후원회 032-765-6920

모집 | 일반

◆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 032-930-8500~3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호스피스

대상: 말기암 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자
담당: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032-280-6201~3

◆ 커피바리스타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주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한국SOS어린이마을 국제협력담당 모집

모집분야: 국제협력담당
자격기준: 영어 능통자(통번역 업무수행)
근무지역: 서울
☎ 법인사무국 053-984-6928
www.koreasos.or.kr

◆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동계특강

과목: 클래식 명곡 음악감상,
아베마리아와 성체 묵상곡으로 배우는 발성법,
성악 입문, 클래식 기타로 성가 연주하기,
가톨릭 성가를 이용한 편곡법
수업기간: 21/1~2월
(기간 및 시간은 과목별로 상이함)
접수기간: 12/14(월)~31(목)까지 접수교육
장소: 최양업 홀
(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02-393-2213~5
http://www.casm.site/

순례 | 기타

◆ 흥성남 신부와 수도원 순례

수도원 순례: 2/22~26 [5일]
순례지: 글라라, 올리베타노, 가르멜
☎ 정 아교보 010-3712-8119

◆ 국내성지순례

12/26~27 마산교구 14만원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7:30 출발
☎ 김천래 바오로 010-9200-3532

성소모임

◆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곳: 대전 분원 ☎ 010-8683-6848

후원 안내

◆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내용	인원	금액
추모의 벽	1인당	1,000,000
기도의 벽	1구좌	500,000

혜택: 한 달에 한번 10년간 미사 봉헌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